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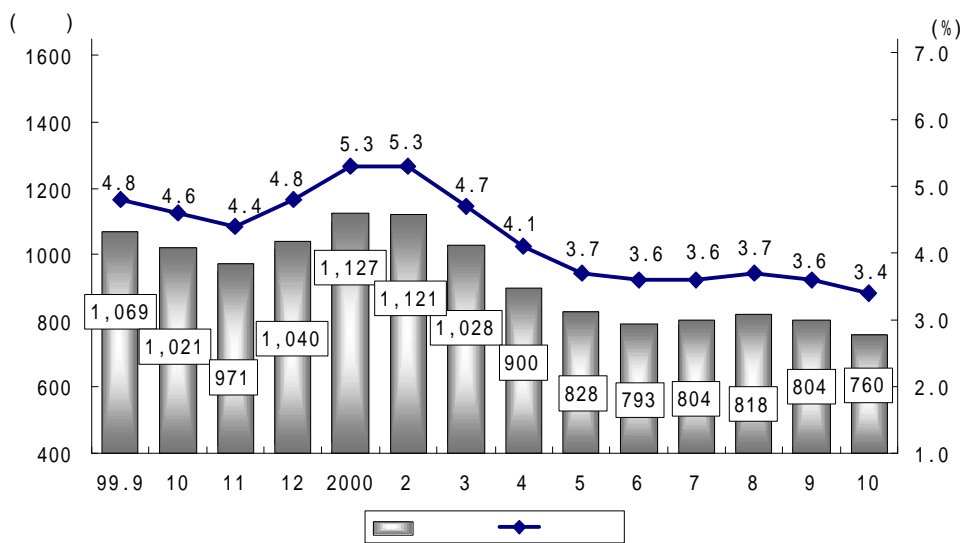
현안 분석

2001년 1/4분기 실업률 전망

실업률 재상승 가능성

- 최근 실업률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
 - 외환위기 이후 1999년 2월에는 8.6%까지 상승하였던 실업률은 지속적인 경기 회복으로 2000년 10월 3.4%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 하였음
 - 실업자 수도 1999년 2월의 178.1만 명에서 2000년 10월 76만 명으로 떨어짐

< 최근 실업 추이 >



-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 존재
 - 그러나 현재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고 있으며, 기업 및 은행권 구조조정의 여파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실업 증가까지 감안하면 내년 1/4분기까지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함

실업률 전망

- (전망 방법) 경기 요인, 계절적 요인 및 구조조정 요인으로 나누어 전망
 - 내년 1/4분기까지의 실업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경기 요인, 계절적 요인 및 구조조정 요인 등임
 - 여기서 경기 요인이란 경기 침체에 따른, 계절적 요인이란 농한기 및 건설업 노동 수요 감소에 따른, 구조조정 요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한 실업 증대를 의미하는 것임
- (경기 요인) 2000년 1/4분기의 경우 실업자 수 19.6만 명 증대 예상
 -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자 변화는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오쿤의 법칙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,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법칙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¹⁾
 -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오쿤의 계수를 최근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수정하여 이용하면, 2001년 1/4분기에 경기 요인으로 인해 증가할 실업률은 0.9%p(실업자 수는 약 19.6만 명)으로 나타남
- (계절적 요인) 실업자 수 10.3만 명 증대 예상
 - 지난 1991~99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나타난 월별 실업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, 계절적 요인으로 12~2월 사이의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뚜렷함
 - 계절적 요인에 따라 1/4분기에 증가하는 실업자 수 누계를 구하면 10.3만 명²⁾임

< 월별 실업자 수 변화 추이(91~99년 평균) >

(전월대비, 만 명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2.36	8.88	-0.91	-5.70	-3.97	-1.92	1.29	-1.80	-2.32	-1.18	1.48	3.80

- 1) '90년대 자료로 오쿤의 계수를 구하면 성장률 1% 증가시 0.32% 정도의 실업률 감소가 나타남. 이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사이의 예상 경제성장률 차이는 -1.1%p(10.7%→9.6%)여서 실업률이 0.35%p 상승하여야 하나 실제 실업률은 오히려 2.3% 하락(6.3%→4.0%)할 것으로 예상됨. 이는 1998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실업 대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됨
- 2) 이는 정확히 말하면 전년 12월에 비해 증가하는 실업자 수 총계이지만, 계절적 요인에 의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 수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

- (구조조정 요인) 총 3만 여명의 실업 증대 예상
 -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부실기업 정리, 즉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직·간접 실업자 수는 노동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2.8만 여명³⁾임
 - 여기에는 부실기업 정리 외에 은행권 구조조정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대략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 증대할 실업자 수는 약 3만 여명이라고 추정함

- (2001년 1/4분기 실업 전망) 실업자 수 120.5만 명, 실업률 5.5%
 -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1/4분기에는 총 32.9만 명의 실업자 증대가 예상됨
 - 여기에 올 해 평균 실업자 수 전망치인 87.6만 명⁴⁾을 더하면 2001년 1/4분기 실업자 수는 총 120.5만 명에 달하게 됨
 - 2001년 1/4분기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기에 비해 1.5% 증가한다고 가정⁵⁾하면 실업률은 5.5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 - 그러나 1/4분기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 감소, 구조조정에 따라 증대한 실업자의 재취업,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및 실업 대책 실시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, 연평균 실업률은 4.4%(실업자 수 약 97만 명) 정도로 예상됨

< 2001년 실업 전망 >

(%, 만 명)

	1999	2000	2001		
			1/4	2/4~4/4	평균
경제성장률	10.7	9.6	5.5(연평균 성장률)		
실업률	6.3	4.0	5.5	3.6~4.3	4.4
실업자 수	135.3	88	120.5	80~95	97

주: 2000년 및 2001년 자료는 본 연구원의 전망치임

(홍성민 · 이보성 연구위원 *hsamu, bslee@hri.co.kr* ☎ 3669-4013, 4021)

- 3) 「부실기업 정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」, 한국노동연구원, 2000. 11. 6 참조
- 4) 본 연구원의 올 해 실업률 전망치인 4%를 이용해 도출한 실업자 수입
- 5) 2000년 3/4분기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.8%였으나, 내년 1/4분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이 증가율이 좀 더 낮아지리라 판단되기 때문임